

202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에베소서

메시지 6

기도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고
말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파함

성경: 엡 3:2, 8-9, 행 6:4, 눅 11:5-13, 사 22:15, 19-24, 계 3:7

- I.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엡 3:8).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야 한다(엡 1:22 하-23, 3:9, 14-21).
- II.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다. 따라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안에’이다. “모든 것인 예-수 / 내 모든 것 되네” — 영한동변 찬송가 513장.
 - A.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고전 1:30).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엡 1:3), ‘그리스도 안에서’ 즉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엡 1:6).
 - B.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가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 역시 죽으셔야 한다 — 롬 11:17, 24.
 1.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와 다윗의 가지가 되시기 위해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접붙여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14, 마 1:1, 스후 3:8, 렘 23:5, 33:15.
 2.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고 그분과 결합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잘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갈 2:20), 우리도 십자가에서 ‘잘라졌다’.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롬 6:6).
 3. 더욱이 주님은 그분의 부활의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라고 하셨다(요 14:20).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는 그분과 결합되었고 이것은 그분의 접붙이시는 일의 완결이었다.
 4.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져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된다(계 2:7, 요 15:1, 4-5).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요 20:22, 고전 15:45 하, 빌 1:19, 고전 6:17).
 5.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골 2:10).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골 2:9) 그리스도 안에 넣어진 후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져서 그분의 표현이 된다(골 1:19).
 - C.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다(시 91:1-2).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에 관하여 주님은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요 14:30)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입지나 기회나 희망이나 가능성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요 14:30).

III.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신성한 가족의 청지기로서(사 22:15, 19-24, 엡 2:19, 22, 딤후 1:3-4, 3:15, 엡 3:9),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아름답게 되심을 위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한 풍성들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분이시다(엡 3:8, 16-21, 5:25-27, 창 24:2, 47, 53, 61-67, 사 60:7 하, 9 하, 19 하, 21 하).

- A.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 곧 생명의 영의 범으로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의 풍성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가 생명에게 삼켜져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 롬 8:2, 10, 6, 11, 고후 3:6, 5:4.
- B.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변성한 은혜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그들의 겸손으로 취하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에게 매순간의 공급과 지속적인 누림이 되신다 — 요 1:16-17, 약 4:5-6, 고후 12:9, 벰전 1:2, 5:5, 4:10, 엡 3:2.
- C. 그리스도는 어깨 위에 (하나님의 왕국의 건축을 위해 다윗의 집으로 예표 된)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의) 열쇠가 놓인 분이시다 — 사 22:22, 계 3:7.
 - 1.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주님은 회복된 교회에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 계 3:8.
 - 2.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흰 돌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가진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도록 문을 연다 — 계 2:17, 3:12, 비교 21:22.
 - a.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범은 불가능을 처리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 — 롬 8:2, 눅 18:27, 비교 창 28:12-19, 요 1:51.
 -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계속 만져야 한다 — 고후 2:10, 롬 8:6, 마 5:3, 8.
 - c.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자아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음이라는 열쇠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두 ‘썩나’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 — 사 22:15-19, 마 16:24-25.

IV.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수 있다 — 행 6:4.

- A.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참되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 골 4:2, 갈 2:20, 빌 3:3, 4:6-7, 11-13.
- B. 우리는 체험 가운데서 자주 그리스도, 곧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해야 한다 — 요 15:5, 시 90:1, 91:1, 5:3, 사 50:4.
- C.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급을 위해 (떡과 생선과 달걀로 대표되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인다 — 눅 11:5-13.
 - 1. 떡은 땅의 풍성을 대표하고,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대표하며, 달걀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것의 풍성을 대표한다. 성령은 이러한 풍성들의 총체이다.
 - 2.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넣는 기도를 하여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떡과 생선과 달걀로 상징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먹고,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도 먹일 수 있다 — 겔 3:1-4, 빌 1:25, 엡 3:2.
 - 3.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께 구하기’를 배워야 한다.
 - a.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 눅 11:13.

- b.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 요 4:10, 롬 6:23.
- c.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 시 27:4.
- V.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노래함으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누릴 수 있다 — 롬 10:12-13, 시 27:8, 계 22:20, 엡 6:17-18, 시 116:12-13, 119:11, 14-16, 23-24, 72, 97, 99, 111, 골 3:16, 시 119:54.
- VI. 우리는 우리의 혼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혜택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는 말(그분을 칭송하고 경배와 함께 찬송)을 하고(시 103:1-19) 주님의 천사들과 그분의 군대들과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수 있다(시 103:20-22).
- VII.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사역에 의해 몸 안에서 몸을 위해 몸을 통해 풍성한 공급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수 있다.
- A. 몸의 공급은 복합적인 관유, 곧 바르는 거룩한 기름으로 예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다 — 빌 1:19-21 상, 출 30:23-25.
- B. 복합적인 영은 몸 안에 있고 몸을 위해 있으며 몸을 건축하는 제사장의 봉사를 위해 있다 — 시 133, 출 30:26-31, 롬 15:16, 벰전 2:5, 9.
- C. 시편 133 편에 따르면 형제들이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더없이 좋음과 즐거움은 보배로운 관유에 비유된다. 하나의 실행인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 주는 만능열쇠이다 — 엡 4:1-6, 고전 1:10, 빌 2:2.
- D. 우리는 지체들의 중보 기도와 교통에 의해 그 영의 공급을 받는다 — 빌 1:19, 살전 5:25, 3:8, 고전 10:16 하, 요일 1:3, 시 73:16-17, 마 5:14, 계 1:20, 고전 16:18, 엡 4:16.
- VIII.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 안에 있는 그분의 승리에 속한 모든 항목들과 함께 삼일 하나님 자신을 누림으로 날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릴 수 있다 —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더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네. 셀라” — 시 68:19, 12-13.